

Style 조선일보

MARCH 2014 vol.105



Sulwhasoo

Jewel SWEET DARLING

달콤하게 사르르 녹아내리는 사랑스러운 주얼리 컬렉션.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핑크 사파이어에 다이아몬드와 플라티넘을 세팅한 하트 펜던트 9백만원대,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한 쉬어드 프롱 링 7백만원대 모두 **타파니**, 골드에 담수 진주를 세팅한 하트 투 하트 링 2백만원대 **타사키**, 다이아몬드와 핑크 사파이어를 차례대로 세팅한 스윙 링 6백만원대 **타파니**, 핑크 골드에 핑크 사파이어를 상돌리에처럼 세팅한 사파이어 레제 드 가르띠에 네크리스 1천6백만원대 **가르띠에**, 달콤한 마카롱 모티브의 사랑스러운 워치 가격 미정 **부세론**, 스웨이 커튼한 로즈 퀴츠, 에미스트, 페리도트 등 3가지 유색석을 캔디처럼 세팅한 칼렉스드 알레강스 컬러 믹스 링 3백60만원대 **타사키**, 별집 모양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트 토세이드 네크리스 4백10만원대 **가르띠에**, 에디터 **배미진**



포토그래퍼 명정훈

Venue

프리미엄 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TWG 티 살롱 & 부티크

마치 카페들의 밀람처럼 변모한 서울에 우아한 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리미엄 티 살롱이 생겨난 길을 본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존재감을 더해가고 있는 TWG 티 살롱 & 부티크가 최근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열었다. 도쿄, 런던, 홍콩, 두바이 등에 이어 29번째로 생겼다는 이 티 살롱은 TWG 최대 규모의 단독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이 브랜드의 공동 창업자인 티하 복딩 화장이 자랑스러운 듯 "고급스러운 황금빛 외관부터 옐로 티 딤(tea tin)으로 장식한 벽,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린 바닥 등 여러모로 공들인 매장이자 미식 공간"이라고 말했다. 8백여 종의 방대한 차 명단을 갖추고 있다는 이곳에는 1, 2층에 걸쳐 70여 석이 구비돼 있는데, 각종 차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를 우려내 만든 디저트와 요리 등 다채로운 미식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세련미 돋보이는 이 브랜드의 티 레이블(label)에 새겨진 1837이라는 숫자는 동서양 차 무역의 중심이 된 싱가포르에 상공 회의소가 설립된 연도를 뜻한다. 빠른 속도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TWG의 자랑은 독점 계약을 맺은 전세계 36개국의 다원에서 직접 가져온 최상품의 차잎. 특히 최상의 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지지 않은 전엽차(whole leaf)만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서울 부티크에서는 잎차를 원하는 양만큼 덜어서 구매할 수 있는 루스티(loose tea) 5백여 종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다고. 문의 02-547-1837 에디터 **고성연**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에는 최근 감각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라이프스타일 편집매장 SOP(www.sop.co.kr)이 개장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한 선물'이라는 뜻을 지닌 이 매장은 친환경 소재와 디자인을 내세운 '슬로우 라이프 존', 아이의 정서를 어루만져줄 '키즈 룸 데코 존' 등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저마다 다른 특색을 지닌 브랜드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SOP이 엄선한 브랜드로는 정감하면서도 멋스러운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구 프라그셋(Fragset)을 비롯해 합리적인 가격의 리넨 전문 브랜드 린넨테일(Linetales), 프리미엄 향초류 유명한 조나단 워드(Jonathan Ward) 등이 있다. 앞서 가로수길에는 눈이 즐거운 리빙 숍 챕터원(www.chapterone.co.kr)이 문을 열어 인테리어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네덜란드 공업 디자이너 찰리 구다의 아리따운 꽃병, 프랑스 텍스타일 브랜드 린지 파타쿨러의 기분 좋은 패브릭 제품 등을 볼 수 있는 매장이자. 이 밖에 젊은 디자이너들이 이끄는 가구 브랜드이자 컨설팅 기업인 마누파쿰(www.manufakum.com)도 서울 삼성동에 쇼룸을 열었다. 합판, 원목 등을 활용한 마누파쿰의 자체 브랜드 파브릭(Fabrick)과 같은 실용적인 가구부터 일본의 생활 도구를 취급하는 브랜드 224포르셀린의 제품 등 재치와 감각이 돋보이는 소품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에디터 **고성연**

Focus

삶을 감싸는 리빙 숍 열기

삶의 철학을 일상에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인 '리빙'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서울 시내에 다채로운 개성의 라이프스타일 숍들이 들어오고 있다. 핀란드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는 마리메코와 같은 재기발랄한 리빙 브랜드들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는 서울 가로수길의 예화랑 건물 3층

Beauty WATERLY POWER

하나, 토너만으로는 땅감이 해소되지 않는다. 물, 기능성 에센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스터 제품이 필요하다. 섣, 스킨케어 단계가 많아지면 화장이 밀린다. 냷,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이 제일 중요하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품은? 물론처럼 촉촉한 워터 타입 에센스! 생김새나 촉감은 미스트나 토너를 연상시키지만 고농축 인터에이징 에센스가 울고 갈 만큼 보습력이 풍부하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크리닉 이온 베터 에센스 로션**은 쉽게 건조하고 민감해지는 아시아 여성의 피부를 공격한 워터 타입 에센스. 브라이팅 성분을 담아 꾸준히 사용하면 인색이 점차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100ml 4만2천원대). **헤라 셀 에센스**는 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탄생한 '셀 바이오 플루이드 싱크'를 주요 성분으로 해 침투율이 높다. 미백과 주름을 해결하는 2중 기능성 인증을 받았다(150ml 6만원). **SK-II 페이스리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워터 에센스의 시조라고 불릴 만큼 출시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피테라™ 성분이 90% 이상 농축되어 있어 피부결과 피부 톤, 탄력, 광채 등 갖가지 피부 고민을 해결한다(75ml 9만원대). **리리코스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는 수분, 미백, 탄력 등 3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케어한다는 콘셉트로 탄생한 트리플 트리트먼트 에센스. 3가지 식물성 마린 플라크톤이 그대로 농축되어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빠르게 들게 하며, 떨어진 탄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효과적이다. 피부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지고 싶다면 **에스티 로더 마이크로 발효 에센스**를 눈여겨보자. 극한 자연환경에서 식하는 미생물에서 영감을 얻은 마이크로 발효 영양소가 자생력을 높여 유해 환경과 스트레스에 쉽게 지지하지 않는 피부를 만든다(150ml 13만5천원대). 에디터 **이예진**

Exhibition

〈줄리언 오피(Julian Opie) 개인전〉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보행자. 핸드백으로 강조한 쇼퍼백, 특징이 없어 오히려 친숙한 군중. 일상의 평범한 움직임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잡아내 조각과 회화의 영역을 넘나들며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하는 런던 출신의 스타 작가 줄리언 오피(Julian Opie)의 전시가 열린다. 서울 소격동에 위치한 국제갤러리(www.kukjegallery.com)의 2관과 3관에서 오는 3월 23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열리는 오피의 두 번째 개인전으로 비닐 페인팅과 LED 패널, 대형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소개한다. 특히 서울의 보행자들을 묘사한 새로운 회화 연작이 눈길을 끈다. 비범한 재료의 구사도 흥미롭지만 인공과 사물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녹아 있는 정교한 미학적 결과물인 그의 초상화와 풍경화는 단순하면서도 섬세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1980년대 건축물이나 도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오피는 점차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인물과 장소,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드로잉 등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는 고유한 스타일로 미술계에 강력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앨런', '폴' 등 본인에게 친숙한 주변인으로 유추되는 인물을 등장시킨 그의 초기 작품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미묘한 색채의 팔레트와 출중한 선묘로 강렬함을 자아낸다는 평을 들었다. 혹자는 이러한 묘한 강렬함에 대해 '간결한 제스처와 깊은 감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희'라고 표현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을 찾은 줄리언 오피는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며 예술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에 대해 다시금 골뎠이 생각하게 했다. 문의 02-735-8449 에디터 **고성연**



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 2014 vinyl on wooden stretcher, 230x344.3cm ©Julian Opie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